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하려 함이니라” » (누가복음 19:10)

사역 소식: 2025 년 8 월

사랑하는 친구와 후원자 여러분, 살롱!!

이번 편지를 통해서는 저희 사역 프로젝트의 몇 가지 새로운 이야기를 나눈 뒤, 최신 소식과 기도 요청 사항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도구

오늘도 저희는 텔아비브에서 노숙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며 사역을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진행되고 있었지만, 아비브 센터 옆에 목공소를 가진 이웃 중 한 명이 수도물을 잠가 버렸습니다. (그는 가끔 그렇게 하여 저희에게 떠나가라고 압박합니다...)

그는 특수 렌치로 주 밸브를 아주 잠갔습니다. 설거지도 할 수 없고, 화장실도 사용할 수 없으며, 바닥도 청소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청에 전화하여 밸브를 다시 열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웃은 계속 돌아와 밸브를 잠갔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녁에 이르러, 저는 건물 뒤, 수도관 옆에서 깊이 낙심한 채 서 있었습니다.

밸브를 다시 열 도구가 없었습니다. 특별한 플라이어가 필요했지만, 저에겐 없었습니다.

그때, 모퉁이에서 두 명의 노숙자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낡고 더러운 배낭과 찢어진 가방으로 가득 찬 쇼핑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더러웠습니다. 한 명은 얼굴 대부분을 가리는 길고 영킨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 한쪽 눈만 보였습니다. 그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거기, 무슨 일이에요?”

“아마도 도와주실 수는 없을 일이죠.” 저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특수 플라이어가 있지 않은 한...” 그들 중 한 명이 히죽 웃었습니다.

“플라이어는 없죠. 무슨 일인데요?”

저는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이웃이 물을 잠가서 급식을 제공한 후 청소조차 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 바라보다가, 한 명이 밝게 말했습니다.

“아, 나 저 사람들 알아! 기독교인들이지. 오늘 이 사람이 나에게 샌드위치를 만들어줬어. 그 급식소에서 일하는 사람이지? 저 사람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줘야해!”

두 번째 사람이 쇼핑카트 쪽으로 가서 더러운 가방 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전문적인 절도를 위한 도구 세트가 있었고—제가 필요로 했던 바로 그 플라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꺼내 밸브를 열고, 공구를 제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가지세요. 다시 잠기더라도 직접 열면 되죠.”

다른 한 명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 저 공구 필요해. 없으면... 일을 못해...”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들의 절도 도구, 즉 생존 수단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첫 번째 사람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에게 더 필요해. 그에게 주자.”

저는 주머니를 뒤지며 말했습니다. “제가 돈이라도 드릴게요. 적어도 뭔가라도...”

그러나 그들은 모두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중요해요—거룩한 사역입니다.

가지세요.”



그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도구를 손에 쥔 채 멍하니 서서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악을 위해 만들어진 것도 선을 위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어둡고 범죄적 과거를 가진 사람들도 도움과 힘, 위로를 전달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존경스러워 보이는” 사람—직업이 있고, 작업장이 있으며, 공구 상자를 가진 사람—이 사랑의 길을 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상황을 역전시키십니다. 갈증 있는 자에게 물을 열어 주시고, 가장 예상치 못한 손을 통해 공구도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비브 미니스트리 부국장 세르게이)



아슈켈론에서의 사역은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만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리와 엘레나—세 자녀를 둔 우크라이나 난민**입니다. 그들은 친척들의 초대로 2022 년에 도착했으며, 배낭 단 5 개만 가지고 와서 공식적으로 유대인 뿌리를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법적 지원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 임시 체류 자격으로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매우 가슴 아팠습니다. 2023 년 하마스 전쟁 중 아슈켈론의 그들의 아파트가 파편에 맞았고, 엘레나는 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장남은 어느 날 혼수 상태에 빠졌고,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는 매일 스스로 인슐린 주사를 맞으며,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유리는 세차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친절한 사업주 덕분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강인함과 겸손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들은 필요한 것 이상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저희는 이 가정을 돌보며, 식료품 패키지와 기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그들을 메시아닉 공동체에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치유와 필요 공급, 장래에 대한 소망**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소식과 기도제목:

- **아랍인 재활 센터**

새 재활 센터 개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미 임대할 계획인 건물의 주인과 만나 임대 조건에 대해 예비 합의를 마쳤습니다. 건물주는 우선 약 1~2 개월간 리노베이션을 진행할 예정이며, 그 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센터를 개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여성 센터**

또 하나의 기도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여성 보호 시설에 새 직원을 보내 주셨습니다—정확히 필요한 도움입니다. **타냐**는 이스라엘 북부에서 브엘세바로 이사하여 저희와 함께 일할 예정입니다. **그녀가 팀에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또한 새로운 입소자 **알로나***를 맞았습니다. 그녀는 학대하는 남편과의 사건 이후 재판을 기다리던 과말하고 빈대가 득실거리는 감옥에서 바로 저희에게 왔습니다. 법원은 이제 그녀를 가택연금 상태로 저희 보호 시설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미래에 대해 매우 불안해하는 알로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상황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사역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언제든지 저희에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을 섬김이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후원 및 사역 정보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www.avivministry.com



Aviv Ministry Israel



Aviv Ministry



avivministry

dovbikas@gmail.com